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26일 자정(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EPL 19라운드 본머스전에서 선발 출전해 1-0으로 앞선 전반 23분 추가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기뻐하고 있다.

# 손흥민, 12월에만 6골 '이달의 선수상' 보인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리그 2경기 연속으로 멀티골을 터뜨리며 개인 통산 세 번째 '이달의 선수상'에 성공 다가갔다.

손흥민은 26일 자정(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EPL 19라운드 본머스전에서 선발 출전해 후반 43분까지 88분을 소화하며 전반 23분, 후반 25분에 2골을 보태 토트넘의 5-0 대승에 일조했다.

지난 24일 에버턴과의 18라운드에서 2골 1도움으로 맹활약한 손흥민은 리그 2경기 연속으로 멀티골을 터뜨렸다. 앞서 20일 아스날과의 카라바오컵(리그컵) 8강전에서 나온 골까지 보태면 3경기 연속 골이다.

시즌 9·10호골이자 리그 6·7호 골이다.

최근 매서운 골 감각을 과시하면서 12월 '이달의 선수상'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12월에만 리그 6골(2도움)을 포함해 7골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은 6일 사우샘프턴전에서 유럽 진출 통산 100번째 골로 득점 본능을 깨웠다. 3일 만인 9일 레스

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렸다.

20일 아스날과의 2018~2019 카라바오컵(리그컵) 8강전에 선발 출격해 1골을 보태 손흥민은 24일 에버턴과의 18라운드에서 2골 1도움으로 경기 최우수선수(MVP)에 이름을 올렸다.

## 통산 세 번째 영예 도전

## 컵대회 포함 7골 2도움

## 세 시즌 두 자릿수 득점

## 내일 마지막 리그 경기

그리고 이날 다시 2골을 몰아치며 물오른 골 결정력을 뽐냈다. 이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세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과거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다. 2016년 9월과 지난해 4월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통산 세 번째 '이달의 선수상' 수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손흥민은 29일 울버햄튼을 상대로 20라운드를 갖는다. 12월 마지막 리그 경기다.

한편 영국 스포츠전문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에게 최고 평점인 8점을 줬다. 해리 케인과 도움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카일 워터피터스도 나란히 8점이다.

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8.73점을 부여했다. 팀에서 네 번째로 높은 평점이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8.99점으로 가장 높았고, 케인이 8.95점, 모우라가 8.80점으로 뒤를 이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2골을 앞세워 본머스를 물리치고 2위로 도약했다"고 전했다.

"BBC"는 손흥민의 첫 번째 골에 대해 "뛰어난 선수에게서 나온 뛰어난 마무리였다"고 설명했다.

토트넘 홈페이지는 같은 장면에서 "손흥민이 20야드 지점에서 원터치로 (본머스의 골키퍼) 아스미르 베고비치를 뚫어냈다"고 묘사했다.

# KT 양홍석, KBL올스타전 팬 투표 중간집계 1위

리건아·김선형 등 대표 선수들 제치고 우뚝... 투표는 내달 3일까지

양홍석(21·부산 KT)이 KBL 올스타전 팬 투표 중간 집계에서 1위를 달렸다.

KBL은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올스타전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 2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2만622표를 받은 양홍석이 최다 득표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시즌 평균 29분 23초를 소화하며 13점 6.7리바운드 1.2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양홍석은 2만459표를 얻은 리건아(울산 현대모비스)를 제치고 1위를 지켰다.

3위는 김선형(1만9835표), 4위는 김종규(1만9578표)다.

양홍석은 지난 4일 2라운드 최우수선수(MVP)도 수상하는 등 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한편 올스타전은 2019년 1월20일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KBL 올스타전이 창원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스트팬 투표는 1월3일까지다. 이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기술위원회를 통해 최종 24명이 선발된다.

팀 구성 방식은 지난해 호응을 누린 드래프트제를 다시 도입한다. 팬 투표 1, 2위가 드래프트를 통해 올스타팀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 AP '올해의 여성 스포츠 선수' 에 세리나 윌리엄스



출산 이후 복귀해 순항하고 있는 테니스 스타 세리나 윌리엄스(37·미국)가 AP통신 올해의 여성 스포츠 선수에 선정됐다.

AP통신은 27일(한국시간) 윌리엄스가 총 98점을 얻어 88점을 얻은 시몬 비일스(미국)를 제치고 올해의 여성 스포츠 선수에 뽑혔다고 발표했다.

윌리엄스는 지난 2002년 처음 이 상을 수상한 이후 2009년, 2013년, 2015년에 이어 통산 5번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 상을 가장 많이 받은 선수는 베이브 자하리아스(미국)이다. 그는 1932년 육상선수로 이 상을 받았고 1945년 이후엔 골프선수로 다섯 차례 이 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AP통신은 윌리엄스가 지난 2017년 9월 출산한 이후 복귀해

서도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다른 '올해의 여성 스포츠 선수' 후보들은 모두 우승 경력이 있다. 2위인 시몬 비일스는 지난 11월 세계 체조선수권 대회에서 4관왕에 올랐고 4위에 오른 한국계 클로이 김은 지난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리스트다.

그러나 AP통신은 윌리엄스가 지난 2017년 9월 출산한 이후 복귀해

## 올 시즌 우승 트로피 하나 없이 선정

## "출산 이후 복귀한 것 자체로 승리"

업스의 수상은 조금 놀랍다.

윌리엄스가 메이저 대회인 윌비던과 US오픈에서 준우승을 기록하는 했지만 올 시즌 따낸 우승 트로피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여자프로테니스(WTA)투어에

보여준 투혼에 주목했다.

이 매체는 "윌리엄스가 전에 이 상을 받았을 때는 우세했던 기량 덕이었다면 이번에는 인내력이 수상 요인"이라며 "출산 후 건강상의 우려가 있음에도 테니스계로 빠르게 복귀한 것 자체로 승리"라고 높게 평가했다.

##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즌 첫 2연패...3위 추락

펍 파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가 올 시즌 첫 리그 연패는 수렁에 빠졌다.

맨체스터 시티는 26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 킹 파워 스타디

움에서 열린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레스터 시티와 원정경기에서 1-2로 패했다.

지난 18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와 경기에서 2-3으로 졌고, 이날 레스터 시티에게도 일격을 당하면

서 올 시즌 첫 2연패 늪에 빠졌다. 맨체스터 시티는 14승2무3패를 기록하고 있다.

라이벌 팀들의 기세 또한 매섭다. 공교롭게도 이날 토트넘이 손흥민의 2경기 연속 멀티골을 앞세워 본머스를 5-0으로 이기면서 토트넘이 2위로 올라가고 맨체스터 시티가 3위로 떨어졌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Forest to Heaven, Guryul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원담 구례군은 지리산자연, 장세마을, 화엄사, 설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북아재-기단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